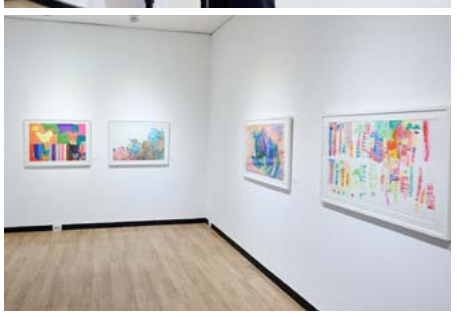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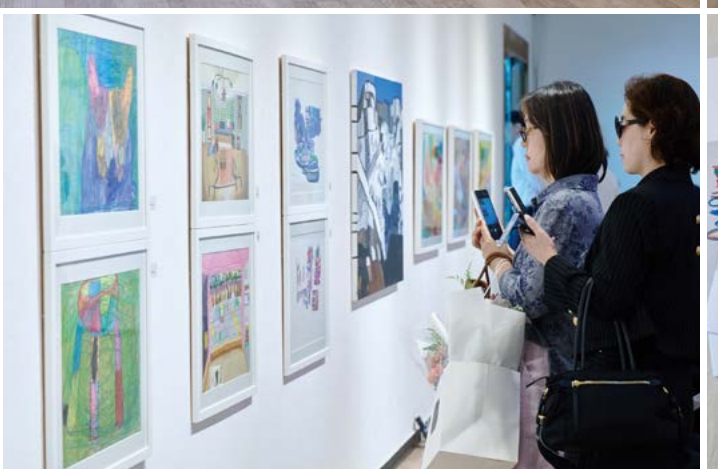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발달장애 화가들의 '일상, 이어지는 즐거움'

20년 세월에 담긴 하나님 은혜, 귀한 달란트로 전시회 열어

사단법인광림이 주최하고 광림교회 사랑부와 광림이레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발달장애 화가 미술 전시회 '일상, 이어지는 즐거움'이 9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7일 동안 서울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3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회에는 광림교회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 화가 24명이 참여해 총 29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하나님께서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심어주신 특별한 사랑과 예술적 달란트가 20년간 어떻게 꽃피워졌는지를 간증하는 자리이다.

'일상, 이어지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처럼 작가들에게 창작은 단순한 일회성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거룩하고 기쁜 삶의 일부였다. 세상의 분주한 기준 대신 저마다의 속도로 색을 고르고 붓질을 이어가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과 감사가 캔버스에 아름답게 담겨있다.

은혜로 빚어낸 20년의 창작 여정

미술 전시회를 통해 만나 볼 또 다른 감동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축적된 창작 여정과 변천 과정이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공개된다는 점이다.

초기 습작부터 원숙미가 묻어나는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표현 방식의 진화와 예술 세계의 확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완성작과 더불어 생생한 미술 수업 장면과 창작 현장 사진, 작가 인터뷰 등을 함께 구성하여 작품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시간과 정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오랜 인내와 꾸준한 신앙적 교제 속에서 성장한 작가들의 작품에는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도전과 은총임을 예술을 통해 널리 알리며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예술로 하나되는 치유와 소통의 자리

우형진 장로(사랑부 위원장)는 "하나님께서 각 작가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한 시선과 재능이 오랜 시간 믿음 안에서 묵묵히 이어져 마침내 귀한 예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치유와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작가들이 창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주형 작가의 부모인 이상훈 권사는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그 순간의 감정이 화폭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의 쉼과 평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주형이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간증했다.

작가들의 작품과 삶의 고백이 담긴 전시 안내 책자도 전시회장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폐막일인 15일에는 오후 1시에 마감한다. 사랑부는 이번 전시가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작가들이 꾸준히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광림교회 사랑부(02-2056-56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권 기자

2 광림의 강단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3 광림 스토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1
4 하나님을 만나다 2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5 다음세대 교회학교·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보고예배
7 목회현장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눅 5:28)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내 삶 속에 성품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은 유난히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세리라 불리우던 레위라는 사람을 찾아가 마태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라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태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녕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달라지고 있는가? 본문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는 당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공동체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로마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내면의 깊은 갈등과 더불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던 레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레위를 오늘 본문에서는 "따르니라"(27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째, καταλιπὼν(카탈리폰)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인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그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세리'라는 직업과 '세관'이라는 일터, '돈'이라는 정체성을 버려야 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기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 사용하는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anastas(아나스타스, ἀναστὰς)라는 단어는 anistemi(아니스테미, ἀνίστημι)의 동사형으로서 '일어서다, 일어나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곳곳에서 삶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던 삶, 그 삶은 바로 결단에서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27~32

27.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레위가 마태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갔던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29절).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청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Thomas Wright)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혈통이 불확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여 있는지, 속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율법과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켜도 바리새인들이 정한 방식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더불어 무시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 이러한 사람들을 레위가 초대한 것입니다. 레위는 왜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미국의 침례교 목회자 레슬리 플린(Leslie B. Flynn)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축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축하의 의미입니다.
둘째, 작별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좋아하던 것과 관계하던 것을 모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증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소개하고, 이 잔치를 통해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 삶에 의미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열어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레위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존재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되어, 그 소중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태가 배웠던 외국어와 그리고 구약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레위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레위의 삶이 쓰여진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뒤집을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를 바꾸셔서 마태가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 - 1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현대인의 삶에 극대화된 편리함을 선사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요 4:23~24)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 예배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모이는 예배

초대교회의 예배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모이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라고 증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표현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섬김'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삼하 24:24)라며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고백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인간의 심리적 만족이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롬 12:1)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공동체성의 중요성은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목회 철학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리교회 운동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이어진 원동력은 화려한 설교나 방법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임을 강조한 조직에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들이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돌보는 '속회'(Class Meeting)와 '밴드'(Band) 제도를 통해 더 깊은 영성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웨슬리는 "홀로 믿는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함께 모여 서로의 믿음의 불씨를 지펴줄 때 비로소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감리교회의 영적 유산은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려지는 거룩한 질서와 감격이 살아 있는 예전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속회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영적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교회와 각 위원회 활동을 하며 헌신과 세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봉사로 이어집니다. 즉, 광림교회의 예배는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속회와 선교회를 거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편리함의 유혹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다해 모였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과 존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배의 감격이 삶의 헌신으로 타오르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목회선교지원실

글로벌감리교회(GMC) 총회, 김정석 감독회장 참석

KMC · GMC 글로벌 연대와 선교 협력 공식화

기독교대한감리회(KMC) 김정석 감독회장과 대표단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글로벌감리교회(GMC) 총회에 참석해 양 교단 간 '상호협력 서약서'에 서명하며 글로벌 연대와 선교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방문에는 감리회 감독회의에서 김성복 감독(서울연회), 유병용 감독(서울남연회), 김종필 감독(중앙연회), 이웅천 감독(남부연회), 박인호 감독(충청연회)이 동행했다.

글로벌감리교회(GMC)는 전통적인 웨슬리 운동의 가르침과 성경적 거룩함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2024년 코스타리카 산호세 창립 총회를 거쳐 공식 출범한 교단이다. 출범 이후 불과 4년 만에 4,700여 개였던 교회가 7,250여 개로 급성장하고, 연회 수도 36개에서 55개로 늘어나는 등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어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제2회 총회는 교단 역사상 단 두 번째 개최되는 총회로서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

'거룩함의아름다움'(The Beauty of Holiness)이라는 주제로 모인 전 세계 목회자와 평신도 대의원들 800여 명은 일주일 동안 함께 예배하며 교회의 미래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9월 3일 진행된 기독교대한감리회(KMC)와 글로벌감리교회(GMC)의 상호협력 서약식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1885년 선교사들의 내한 이후 아시아의 활기찬 신앙 중심지로 성장한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를 소개했다. 이어 전쟁, 테러, 경제적 불평등, 세속주의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신앙 본질의 회복과 '세계적 연대 사역'의 확장을 역설했다. 김 감독회장은 "깨뜨릴 수 없는 하나 됨을 이루어 가자"며 KMC와 GMC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히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소망했고, 대의원들은 기립박수로 뜨겁게 화답했다.

이번에 체결된 서약서에는 양 교단 간 세례와 안수의 상호 유효성 인정, 정기적 지도자 교류 외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조항 4번을 통해 소속 목회자나 교회가 상대 교단으로 이동할 때 사전에 소속 연회에 알리고, 연회 간 상호 협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한 김정석 감독회장 일행은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다. 먼저 일행은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를 방문하였다. 현재 교육동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숙사와 식당, 채플이 완공되어 다가오는 내년 1월부터는 제2기 광림신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광림스쿨은 현재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해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어 리빙스턴 감리교 선교지를 방문한 일행은 향후 '광림신학교 리빙스턴 캠퍼스'를 설립하여 현지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감당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GMC 총회 참석과 아프리카 현장 방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KMC)와 글로벌감리교회(GMC) 간의 새로운 에큐메니컬 언약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며, 오랜 동반자인 연합감리교회(UMC)에 이어 새롭게 조직된 글로벌감리교회(GMC)와도 우호적 관계를 넓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KMC 대표단은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한 리더십과 선교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 깊이 각인시키는 한편, 풍성하게 받은 사랑의 빚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와 나누는 세계선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혔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2026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20)를 주제로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되고 있다.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다시 예배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10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까지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된다.

명절가정예배
명절가정예배문이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정예배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감독회장 동정

8/31~9/5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방문 및 GMC 총회 참석
9/6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장학금 수여식
9/7	감리교 원로장로회 수련회
	개회예배
9/8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9/9	사랑부 전시회 개회예배
9/10	경희대학교 기독교수회 예배
9/13	유아세례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2026년 2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

하나님 나라의 청년 인재들을 세우는 희망

광림교회는 9월 6일(주일) 광림장학위원회(위원장 최동호 장로) 주관으로 본당 대예배실에서 제36기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를 드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2026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성적 우수 장학생 22명과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 12명, 선교사 자녀 장학생 1명 등 총 35명의 학생들에게 5,9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듯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장학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최동호 장로는 "광림장학위원회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믿음으로 후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도들의 정성에 감사하며 학업에 힘쓰고, 거룩한 예배자로, 맡겨주신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했다.

광림장학위원회는 28년 동안 매년 두 차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신앙 생활에 본이 되며 봉사에 힘쓰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림 장학금은 성도들의 매월 1만 원 장학헌금과 김덕실, 오옥자, 이주형, 이혜경, 김선욱 기념 장학금, RMS 기업 장학금, 장학위원회의 헌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광림장학금은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감사헌금 봉투에 '장학'이라고 기재하여 헌금하면 청년 인재들을 세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소현수 기자

광림 남성성가단

찬양으로 이어온 41년 '한여름 밤의 음악회'

올해로 창단 41주년을 맞은 광림 남성성가단은 지난 8월 29일(토) 오후 6시 대전 좋은교회 본당에서 농어촌선교를 위한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찬양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며, 41년 동안 선교와 전도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온 남성성가단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8곡을 모두 암보해 찬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악보를 외우며 연습했고,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녹음 파일을 들으며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날 단원과 가족들은 아침 일찍 교회를 출발해 공주 공산성과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교제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성은경 장로가 성경 속 찬양의 역사를 나누었고, 단원들은 찬양의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후 좋은교회에 도착해 마지막 연습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박정호 담임목사의 소개와 기도로 '한여름 밤의 음악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은 광림남성성가단 창단 지휘자인 백선용 목사의 '파송의 노래'였습니다. 이어 '주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를 찬양하자 성도들의 박수와 아멘이 본당을 채웠습니다. 이덕희 권사의 하모니카 연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조태영 권사의 '집으로 가자', 남성성가단의 'Marching'과 '송축해 내 영혼'도 이어졌습니다. 좋은교회 박영자 사모의 'Amazing Grace'와 여성 앙상블 '차오'의 '아리랑 모음곡'도 음악회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마지막 곡 '여리고 성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1~27절 말씀을 바탕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장면을 영상과 찬양으로 풀어낸 약 10분 길이의 곡으로, 단원 모두가 암보해 찬양했습니다. 곡을 마치자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단원과 성도가 찬양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앙코르곡 'I Love You Lord'와 '예수 믿으세요'를 회중과 함께 부르며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41년 동안 이어온 찬양의 사명을 되새기며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도 다시 품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21)

김철환 권사(광림 남성성가단)

1선교구

일일성경학교 '텐트 메이커'

1선교구는 지난 8월 28일(금) 일일성경학교를 '텐트 메이커'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장막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등에서 천막(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선교 비용과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던 일에서 유래하여 전문인 선교 혹은 자비량 선교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약성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로 성막을 지었던 것에서 유래하여 성막을 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번 일일성경학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여 '1선교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텐트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1부 성막 체험, 2부 기도회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성막 체험은 사회봉사관 3층에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사용된 '성막 모형'을 활용하여 견학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막 모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던 박인수 권사(3교구장)는 가이드로 성막의 물두멍, 번제단, 성소 등 성막의 각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며 "비록 모형이지만 만드는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고백에 출애굽 당시 성막을 지었던 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도 묵상할 수 있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2부 기도회는 금요은혜의 밤에 참석해 '다시 성전을 세우는 삶으로'(학 1:4~9)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일 성경학교에 참석한 1교구 김민정 권사는 "삶 가운데 지성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교구의 한문숙 권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교구의 문진선 권사는 "감격스럽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1선교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선영진 목사(1선교구)

교회학교

2026 교회학교·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보고예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경험한 은혜, 성도들과 함께 나눠

광림교회는 8월 30일 주일 저녁예배를 '2026 교회학교·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보고예배'로 드리고, 지난 여름 다음 세대에 부어주신 은혜를 온 성도와 함께 나눴다.

아동부는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부는 '은혜의 파도를 믿음으로 타고 나가요'를 주제로 진행한 여름성경학교의 여정을 영상과 찬양으로 돌아보며 기도와 헌신을 새롭게 했다.
김진섭 장로는 대표 기도에서 모든 교회학교가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것에 감사하고, 실물 성막 체험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음을 되새겼다.
성경학교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성령께서 늘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했다.
박범규 목사는 신명기 8장 2~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난 여름 교회학교와 사랑부가 걸어온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며, 여름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광야가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였듯 다음 세대 역시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막에서 만난 하나님, 삶으로 이어가는 믿음

말씀 후에는 각 교육 부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여름성경학교 현장을 돌아봤다. 미취학부와 취학부는 '하나님을 만나요'를 주제로 실물 성막과 말씀 체험을 통해 예배와 구원의 의미를 배웠다.

사랑부는 '은혜의 파도타기'를 주제로 학생과 교사, 경찰대 봉사팀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물놀이와 말씀 체험, 찬양과 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베드로와 라합, 요나의 이야기를 따라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구원, 세상을 향한 선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 영상에 이어 교회학교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요'를 특송하며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성도들과 나눴다. 아이들이 찬양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지며 다음 세대를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무더운 여름 동안 교회학교와 사랑부를 위해 수고한 교사와 부장 교사, 위원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광림의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며,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는 경험이 평생의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예배는 여름성경학교의 여정을 돌아보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경험한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성막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교회학교 아이들과 '은혜의 파도'를 함께한 사랑부 학생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되새겼다.

한혜선 기자

청장년부

가을영성수련회 '순종'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영적 재충전 시간 가져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 가을영성수련회가 '순종'(삼상 15:22)이라는 주제로, 8월 29일~30일, 1박 2일간 3040청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청장년부 가을영성수련회는 '아가세 캠프'(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아청캠프'(아름다운 청장년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다 작년부터 '청장년부 가을영성수련회'라는 이름으로 1부 싱글 세대와 2부 가정 세대가 함께 모여 진행되고 있다.

청장년부 가을영성수련회는 7~8월 여름 시즌 동안 아이들을 여름성경학교에 보내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마무리한 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자녀 양육 등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1박 2일의 시간으로, 가을의 문턱을 여는 8월 말과 9월 초에 개최한다.
청장년 세대들은 가을영성수련회를 통해 직장과 일터,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지친 청장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가을영성수련회의 개회예배는 광림남교회 청장년부 담당 송양근 목사가 여호수아 1장 5~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하였으며, 말씀을 통해 청장년 세대들은 '순종'이라는 수련회의 주제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이어진 오후 프로그램은 청장년 세대가 모두 함께 어우러진 '광림픽'(광림올림픽)과 선택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청장년 세대의 관심사에 따라 'AI 시대의 자녀 교육', '신앙 북클럽', '창업 코칭', '세금 코칭', '복음적 대화 훈련', '강단 꽃꽂이', '뜨개질', '탁구' 등의 클래스를 열고, 강사를 초청하여 개인당 2가지의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진 저녁 집회에서는 청장년부 황지수 목사가 우리가 살아가며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부르심 :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주일예배는 본당과 동일한 순서로, 성가대의 입례송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황지수 목사는 '택하심 :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롬 9:17~18)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복 안수기도 시간에는 가정마다 말씀을 통해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삶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청장년부는 가을영성수련회를 통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했다.

최성우 회장(청장1부)

목회현장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던 교구 권사님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권사님은 고관절 수술 후 힘겹게 재활 중이셔서, 보행기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황이라 성전에 나아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권사님과 따님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재활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 회복되시면 꼭 걸어서 성전에 나아와 함께 예배드려요." 권사님이 처한 상황은 분명 힘겨워 보였지만, 성전에 나아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만큼은 너무나 선명했기에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얼마 전 권사님께서 정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미리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따님 집사님의 보살핌 속에 조용히 주일 4부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2층 구름다리를 지나 성전으로 오르는 작은 언덕길을 올라가려 하는데, 힘이 부쳐 도저히 오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행기를 끌고도 그 작은 언덕길조차 오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결국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 하던 그 순간, 감사하게도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딜가십니까." 저는 즉시 권사님의 왼편에서 보행기가 밀리지 않도록 아래쪽을 꽉 잡고 끌며, 따님 집사님은 권사님 오른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께서는 뒤편에 서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삼겹줄로 묶이어 그 작은 언덕길을 천천히 그러나 담대하게 함께 올랐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성전에 들어서서 뒤편에 앉아 기도하시는데,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 내셨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소원하던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감독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먼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권사님을 위해 따뜻하게 안수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후에 따님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니, 장애물 때문에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예배드리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의 안수기도까지 받게 되었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어떠한 형편과 상황속에서도 성전에 나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신우 목사(10선교구)

4선교구

기도로 새벽을 열고, 식탁에서 하나 되다

광림교회 4선교구가 하반기를 기도로 세워가기 위한 '4선교구 첫날기도회'의 첫 모임을 지난 9월 5일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이어온 기도의 열기를 일상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선교구 첫날기도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6시, 2부 새벽기도회에 맞춰 네 차례 진행됩니다. 교역자가 중심이 되는 행사보다 성도들이 가족과 자녀, 지구·속회 식구들과 함께 새벽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며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날기도회에는 약 50명의 성도가 나사렛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각자의 삶과 공동체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새벽을 함께 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애찬관으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침 식탁은 목회자들이 직접 준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복죽을 비롯해 샐러드와 과일, 빵, 달걀, 소시지 등 호텔 조식을 연상케 할 만큼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성도들을 맞았습니다.

특히 12교구 이정식 성도가 직접 내려준 드립 커피까지 더해지면서 선교구의 경계를 넘어 서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한 성도들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나누며 평소 미처 나누지 못했던 안부와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첫날기도회는 새벽예배와 교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식탁의 교제로 이어지고, 함께 나눈 식탁은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4선교구는 앞으로도 10월부터 12월까지 첫째 주 토요일마다 첫날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구와 속회 식구들은 물론 가족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 세대를 넘어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계획입니다.

호렙산에서 시작된 기도의 마음을 하반기의 매달 첫 새벽으로 이어가는 4선교구의 발걸음이 함께 드리는 기도와 따뜻한 교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병태 권사(4선교구 연합회장)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트남 광림미션센터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세대와 국적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23일(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를 마친 뒤 TAS국제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전교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성인 70명과 어린이 40명 등 총 110명의 성도가 참여해 함께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에서는 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 피구, 장애물 달리기, 계주, 보물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응원과 웃음이 이어졌다. 행사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가정이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에 파송 받은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성도들의 영혼을 품고 눈물로 심었던 기도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셨던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실을 눈으로 확인했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은혜의 현장이었다.

특별히 호찌민 주재원으로 파견된 교민 가정 가운데 이곳에서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자녀를 계기로 부모가 교회를 찾고, 이를 통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등 가정을 통해 구원받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는 교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1부 예배와 주일학교 봉사로 인해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교제의 폭을 넓혔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2030 청장년 네 가정이 기획 단계부터 행사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여러 성도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후원하면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베트남 광림미션센터는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웃고 뛰며 교제하며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를 새로운 영적 동력으로 삼아 2026년 하반기 사역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 호찌민 땅을 위해 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회장님과 청년부 단기선교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성도들은 이번 부흥의 흐름이 호찌민을 넘어 베트남 전역과 인도차이나반도 선교로 확산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김기민 선교사(베트남 광림미션센터)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9월 17일(목), 추석 앞두고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광림교회는 9월 17일(목) 오전 11시 감람동산(춘천시 서면 안보리) 내에 위치한 강촌광림교회에서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를 드린다.

합동추모예배는 광림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 주관으로 매년 한식과 추석을 앞두고 봄과 가을 두 차례 드려진다. 이번 추모예배에서는 조성한 기획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여선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특별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2007년 8월 봉헌된 감람동산은 광림교회의 목회 철학인 '모태에서 천국 소망까지'로 성도의 영적 돌봄을 위해 마련된 자연친화적인 기독교 장례문화 시설이다.
강촌광림교회 1층 베다니홀에는 디지털 명패기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이 함께 고인을 추억할 수 있도록 고인의 사진과 추모 글을 남길 수 있으며, 가족끼리 소그룹 예배도 드릴 수 있다. 베다니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편리한 추모공간을 위해 새로운 안내·유도 사인(sign) 설치

합동추모예배는 유가족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라는 말씀처럼, 이별의 슬픔을 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다. 경조위원회 임원들은 미리 감람동산에 모여 이번 합동추모예배가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예배와 차량 안내 계획,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등 성도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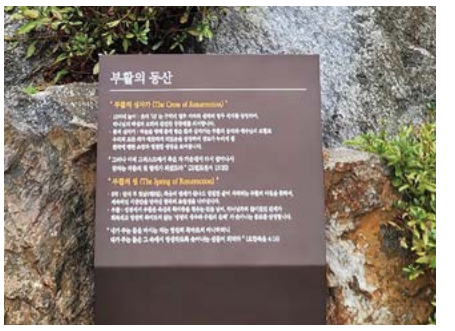
특별히 감람동산과 강촌광림교회 일대에는 안내 표지판 개선 작업이 새롭게 진행되었다. 강촌광림교회 입구와 베다니홀을 비롯해 감람동산과 '부활의 동산'으로 이어지는 길에 새로운 안내·유도 사인을 설치해 방문하는 성도와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추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배경호 장로는 "합동추모예배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고,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광림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림교회에서는 이번 예배를 위해 광림교회에서 춘천 감람동산까지 교회차량을 운행한다. 교회 차량 이용을 원하는 성도들은 9월 13일(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경조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조항장 권사(경조위원회 총무)
(010-5218-4453)

이정순 기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회사업위원회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 장재관 장로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벽 섬김 봉사를 올해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잘 사용하지 않는 동전을 모아 활용하려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위원장 장재관 장로를 만나 보았다.

사회사업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섬김 봉사 때 물품을 받기 위해 불편한 걸음을 재촉해 오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고마움과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적인 것은 행사시 많은 봉사자가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청장년부 회원들이 매달 3~4명씩 돌아가며 새벽에 와서 물품을 나눠 주고,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참여한 가족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전모으기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동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제작해야 합니다. 동전을 모아 활용하면 유익하리라는 생각에 2년 전에도 시행했습니다.

당시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동전 일천만 원, 외국 동전 오백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선교국의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과 외국 동전은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에 후원하여 전 세계 불우한 처지의 어린이와 각국에서 오는 선교사님께 사랑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사랑의 저금통을 2천 개를 제작하여 5월에 배포하였고, 11월에 이를 수거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맞이 어르신 새벽 섬김 행사는?

올해 '추석 맞이 어르신 섬김 봉사'는 추석 전 9월 16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18교구 안병철 권사(지엔씨에너지 대표)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봉사를 합니다.
안 권사는 오래전부터 매년 두 차례, 설날과 추석에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 행사를 주관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보통 첫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지만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바로 전주에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명절을 좀 더 뜻깊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실시하는 어르신 행사는 작년에 비해 10~20% 증가한 260명 ~ 3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새벽 5시 40분에서 시작해 6시 50분까지 약 70분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행사 시 고정적인 품목 기증자가 있다는데?

대부분 위원회 회원과 교인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지만 몇몇 물품은 고정적으로 전담 후원해 주시는 회원들이 계십니다.
김명진 권사(4교구)는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이 담긴 사탕 봉지를 수년째 제공해 주고 있고, 최정희 권사(1교구)는 건강에 달콤함을 더한 두유를, 최한봉 집사(23교구)는 간식용 과자를 후원해 주십니다. 최근에 동참한 이윤희 권사(25교구)는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크림빵(샌드위치)을 행사 당일 새벽에 배송하여 어르신들이 아침 한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회비를 보내주시는 분, 드러내지 않으면서 꾸준히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득섭 기자

7th 광림 한마음

워킹 챌린지

2026.10.03.토.
광림세미나하우스

행사일정

출발 ····· 교구별 버스로 이동
9:00 ····· 집결(광림세미나하우스)
9:00 ~ 9:30 ····· 예배
10:00 ~ 12:30 ···· 걷기(A코스, B코스)
12:30 ~ 13:30 ···· 중식 및 보물찾기
13:30 ~ 13:40 ···· 새신자 환영
13:40 ~ 15:30 ···· 오프닝무대 /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 보물찾기 선물 증정
15:40 ····· 폐회 및 출발

주 관 광림실업인선교회
후 원 장로회, 남선교회총연합회, 여선교회총연합회

광림교회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서미라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